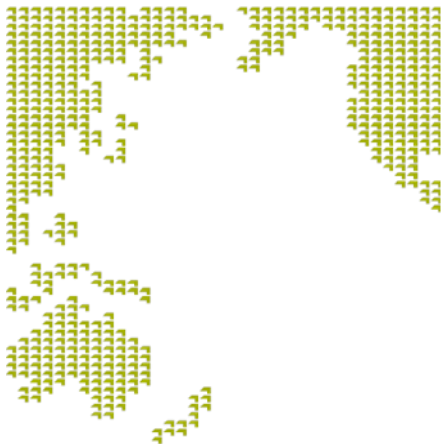


DAISHIN START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2016년 05월 12일 목요일

KOSPI

1980.10 ▼-2.40 (-0.12%)

	5/09	5/10	5/11
증가	1967.81	1982.50	1980.10
등락	-8.90	14.69	-2.40
등락폭(%)	-0.45	0.75	-0.12
거래량(백만주)	341	368	398
거래대금(십억원)	5,160	4,769	4,370
시가총액(십억원)	1,202,951	1,211,920	1,211,025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703.94 ▲3.71 (0.53%)

	5/09	5/10	5/11
증가	691.82	700.23	703.94
등락	-2.35	8.41	3.71
등락폭(%)	-0.34	1.22	0.53
거래량(백만주)	630	570	638
거래대금(십억원)	2,969	2,902	3,059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미국 경기와 안전자산 선호

Focus ▶ 4p 참고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유가, 달러 가치가 그동안 부진했던 가격 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통과. 하지만 미국 경기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비 수요 회복 확인 필요

1분기 기저나 소비 여력 개선은 소비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상승하는 저축률과 주거비, 의료비는 부담. 과거 미 경제지표 부진은 연준 통화완화 지속 시그널로 위험자산 선호 확대 요인. 하지만 미 경기 위축 장기화 될수록 부진한 경제지표는 글로벌 경기 우려 요인이며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증시일정 ▶ 2p

Market Data

Snap Shot ▶ 7p

Chart Alarm ▶ 10p

11일 KOSPI는 기관의 매도세에 0.12% 하락한 1,980.10에 거래 마감

매매 및 자금동향 ▶ 16p

주간 증시 일정

일	화	수	목	금
2	3	4	5	6
韓 4월 수출(1일) (전기:-8.2%, 발표:-11.2%) 韓 4월 수입(1일) (전기:-13.8%, 발표:-14.9%) 美 4월 ISM 제조업 (전기:51.8, 발표:50.8) EZ 4월 마켓 PMI 제조업 확정 (전기:51.5, 발표:51.7) 日 4월 닛케이 제조업 PMI 확정 (전기:48.0, 발표:48.2)	中 4월 차이신 PMI 제조업 (전기:49.7, 발표:49.4) 韓 4월 CPI (전기:1.0%, 발표:1.0%)	美 4월 ADP 취업자 변동 (전기:194k, 발표:156k) 美 4월 내구재 주문 확정 (전기:0.8%, 발표:0.8%) EZ 4월 마켓 PMI 서비스업 확정 (전기:53.2, 발표:53.1) EZ 4월 소매판매 (전기:2.7%, 발표:2.1%)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4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 (전기:52.2, 발표:51.8) OECD 경제전망 보고서(5~20일) 英 지방선거	美 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전기:208k, 발표:160k) 美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전기:0.2%, 발표:0.3%) 中 4월 외환보유고(7일) (전기:\$3212.6b, 발표:\$3219.0b) 中 4월 수출 (전기:11.5%, 발표:-1.8%) 中 4월 수입 (전기:-7.6%, 발표:-10.9%)
9	10	11	12	13
EZ 5월 섹터투자자기대지수 (전기:5.7, 예상:6.0) 中 4월 외국인직접투자 CNY (8~12일) (전기:7.8%, 예상:5.0%) 日 3월 실질 임금총액 (전기:0.4%, 예상:--) 日 4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41.7, 예상:40.7)	美 3월 도매 재고 (전기:-0.5%, 예상:0.1%) 中 4월 CPI (전기:2.3%, 예상:2.3%) 中 4월 PPI (전기:-4.3%, 예상:-3.7%) 中 4월 신규대출 CNY (10~15일) (전기:1370.0b, 예상:815.0b) 中 4월 사회용자총액 CNY(10~15일) (전기:2340.0b, 예상:1300.0b)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EZ 3월 산업생산 (전기:0.8%, 예상:1.1%) 韓 4월 수출물가지수 (전기:-4.5%, 예상:--) 韓 4월 수입물가지수 (전기:-7.7%, 예상:--) MSCI 반기 리밸런싱 韓 옵션만기일	美 4월 소매판매 (전기:-0.3%, 예상:0.8%) EZ 1Q GDP SA 잠정(QoQ) (전기:0.6%, 예상:0.6%) 中 4월 산업생산(14일) (전기:6.8%, 예상:6.5%) 中 4월 소매판매(14일) (전기:10.5%, 예상:10.6%) 韓 금통위
16	17	18	19	20
美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기:58.0, 예상:59.0)	美 4월 주택착공건수 (전기:1089K, 예상:1120k) 美 4월 건축허가 (전기:1086K, 예상:1120k) 美 4월 CPI (전기:0.1%, 예상:0.4%) 美 4월 산업생산 (전기:-0.6%, 예상:0.2%) 日 3월 산업생산 확정 (전기:0.1%, 예상:--)	EZ 4월 CPI 확정 (전기:0.7%, 예상:--) 日 1Q GDP 연간화(QoQ) 잠정 (전기:-1.1%, 예상:0.5%)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韓 4월 PPI (전기:-3.3%, 예상:--) ECB 통화정책회의	EZ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예비(21일) (전기:-9.3, 예상:--)
23	24	25	26	27
美 5월 마켓 PMI 제조업 잠정 (전기:52.8, 예상:--) EZ 5월 마켓 PMI 제조업 잠정 (전기:51.7, 예상:--) 日 4월 수출 (전기:-6.8%, 예상:--) 日 4월 수입 (전기:-14.9%, 예상:--)	美 4월 신규주택매매 (전기:511k, 예상:--) 獨 1Q GDP 확정 (전기:-- , 예상:--) EZ 5월 ZEW 서베이 예상 (전기:21.5, 예상:--)	獨 5월 IFO 기업환경 (전기:106.6,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4월 내구재 주문 잠정 (전기:0.8%, 예상:--) 美 4월 미결주택매매 (전기:1.40%, 예상:--) 韓 5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101, 예상:--) G7 정상회담(26~27일)	美 1Q GDP 수정 (전기:0.5%, 예상:--) 美 1Q 개인소비 수정 (전기:1.90%, 예상:--) 美 5월 미시간소비자신뢰 확정 (전기:-- , 예상:--) 日 4월 CPI(신선식품제외) (전기:-0.3%, 예상:--) G7 정상회담(26~27일)
30	31	6/1	2	3
EZ 5월 경기기대지수 (전기:103.9, 예상:--) EZ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 확정 (전기:-- , 예상:--) 獨 5월 CPI 잠정 (전기:-- , 예상:--)	美 4월 PCE 근원 (전기:1.6%, 예상:--) 美 3월 S&P/CS 주택가격지수 (전기:5.4%, 예상:--) 美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94.2, 예상:--) EZ 5월 CPI (전기:-- , 예상:--) 日 4월 산업생산 잠정 (전기:-- , 예상:--)	美 5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50.8, 예상:--) 美 5월 ISM 신규주문 (전기:55.8, 예상:--) 中 5월 PMI 제조업(통계청) (전기:50.1, 예상:--) 韓 5월 수출 (전기:-11.2%, 예상:--) 韓 5월 수입 (전기:-14.9%,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5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156k, 예상:--) 日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 , 예상:--) 韓 1Q GDP 확정 (전기:2.7%, 예상:--) OPEC 회의	美 5월 비농업 고용자수변동 (전기:160k, 예상:--) 美 4월 제조업수주 (전기:1.1%, 예상:--) 美 4월 내구재 주문 확정 (전기:-- , 예상:--) EZ 4월 소매판매 (전기:2.1%, 예상:--) 日 4월 실질 임금총액 (전기:-- ,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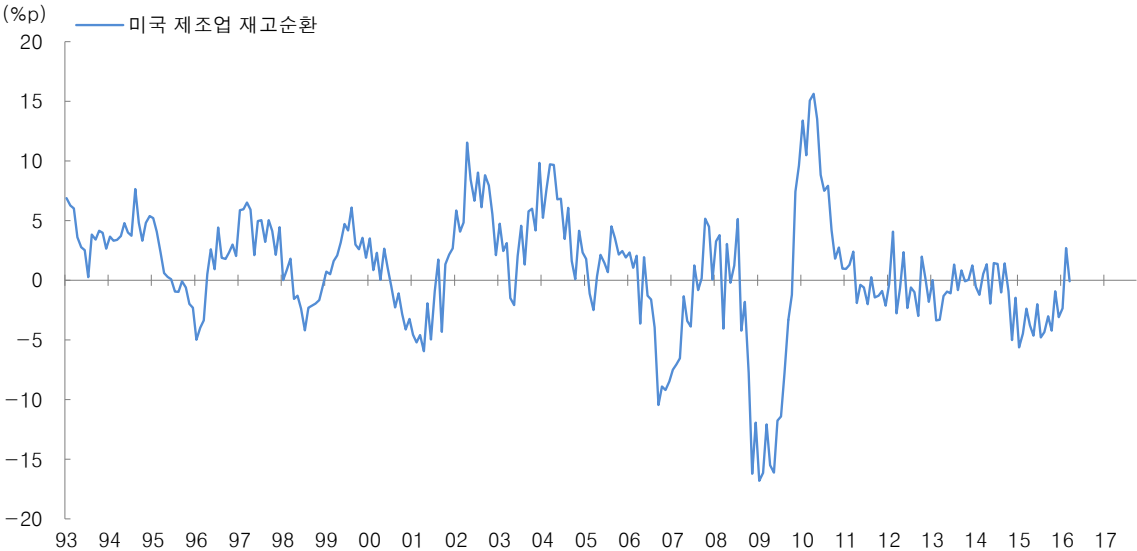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KOSPI 전망

- KOSPI 하락변동성 확대 예상. 기대했던 글로벌 정책 이벤트 통과. 글로벌 정책 / 유동성 공백 기 돌입.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도랠리 연장 동력도 점차 둔화/약화되며 변동성 확대 예상
- 변화의 트리거는 미국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 확대와 신뢰도 후퇴. 안도랠리의 기본 전제가 흔들릴 수 있음. 안도랠리 동력의 약화국면에서는 글로벌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부각 될 전망. Brexit이슈, 중국 기업리스크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 점증.
- 해외상장 중국기업들의 MSCI EM 편입 이슈. 외국인 차익실현 자극. 4월까지 안도랠리를 주도 했던 외국인 수급모멘텀이 KOSPI 하락변동성 변수가 될 전망
- 전술적인 변화 필요. Low Vol, 경기방어 스타일 비중확대. 시크리컬 & 경기민감주 비중 축소

Today's Key Chart

미국 경기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 유가, 달러 가치가 그동안 부진했던 가격 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통과. 하지만 미국 경기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비 수요 회복 확인 필요
- 13일 4월 소매판매, 5월 소비심리지수 발표. 1분기 기저나 소비 여력 개선은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지만 상승하는 저축률과 주거비, 의료비는 부담
- 과거 미 경제지표 부진은 연준 통화완화 지속 시그널로 위험자산 선호 확대 요인
- 하지만 미 경기 위축 장기화 될수록 부진한 경제지표에 글로벌 경기 우려 부각. 과거와 달리 미 경제지표 부진에도 안전자산 선호 확대될 수 있음.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투자포커스

미국 경기와 안전자산 선호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 수요 회복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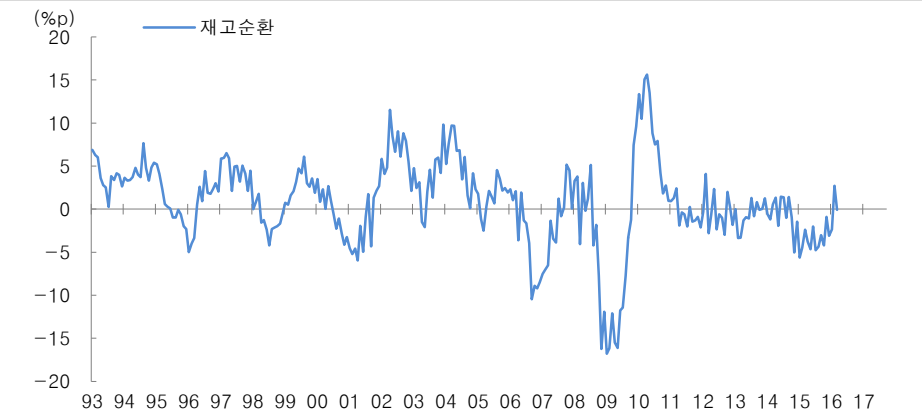
5월 주요국 통화정책 공백 속에 미국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가 회복과 달러 약세 전환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4월 일부 경제지표 부진에 지난 1분기가 미국 경기의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유가, 달러가 그동안 부진했던 가격 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4월 비농업 신규고용자수가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했음에도 제조업 고용은 증가 전환했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 제공한다든 점에서 고용지표의 질적 개선도 이끌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가격 변수 개선 만으로 미국 경기 정상화 여부를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최근 발표된 4월 ISM 제조업지수 하위항목을 보면 제품가격 부문의 빠른 상승에도 신규 주문이 하락 전환되며 총지수가 하락했다.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의 회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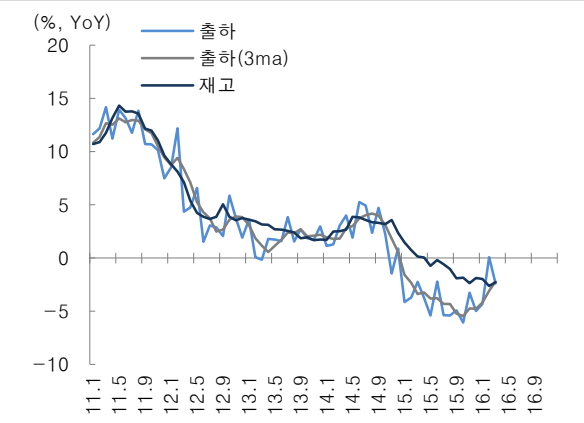
따라서 13일 발표될 4월 소매판매와 5월 소비심리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Bloomberg 예상치 기준)은 4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소비심리지수 또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기저효과와 소비 여력 개선에 빠른 소비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미국 경기 순환: 제조업 재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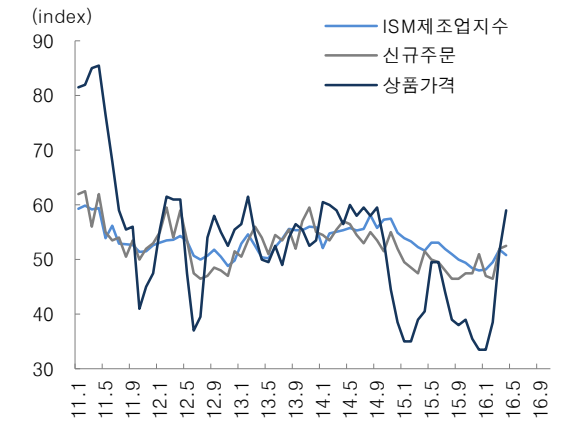
주: 재고순환=출하증가율-재고증가율
자료: CE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 제조업 경기 바닥 다지기



자료: CIB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상품가격 빠른 상승에도 제조업지수 하락



자료: CIB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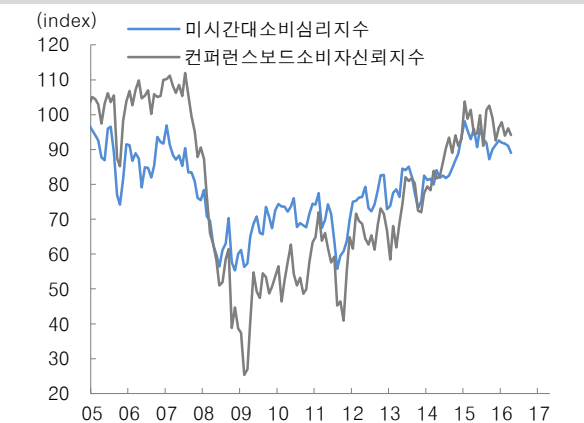
미국 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 관련 지표들 보면 미국 소비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심리지수나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 모두 4월 전월에 비해 하락한 바 있다. 실제로 개인소득 증가율이 시장 예상을 웃돌고 저유가로 인한 소비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저축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거비, 의료보건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와 의료보건비의 비중은 2009년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주거비와 의료보건비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명목기준)은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감소 전환했다.

따라서 금주 후반 발표될 소비 지표가 시장 예상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겠지만, 소비 지표 부진이 확인될 경우 미국 경기 위축은 시장 기대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림 4. 미국 소비심리 추이



자료: CIB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개인 주거비, 의료비 부담 확대



자료: CIB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경제지표와 안전자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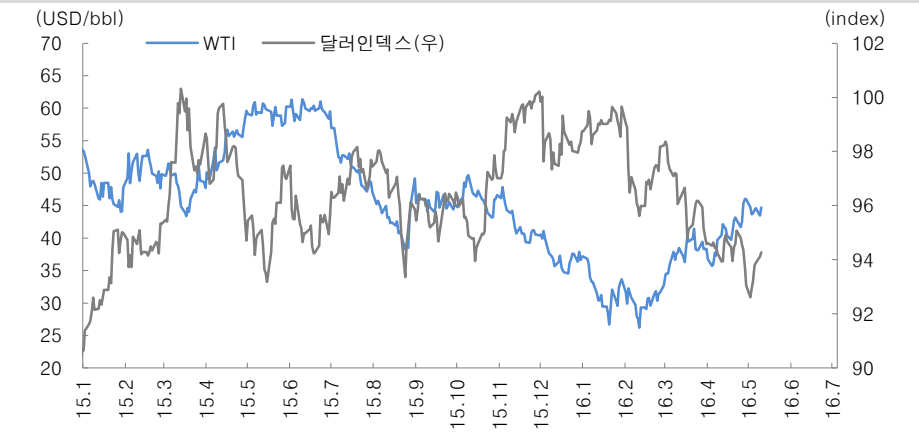
과거 미국 경제지표 개선은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그널로 작용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였던 반면, 부진한 경제지표는 통화완화 기조 지속 기대감을 높여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 될수록, 통화완화에 대한 기대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바닥을 통과했다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소비 지표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 경기 우려가 부각되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소비 지표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며 큰 폭으로 개선될 경우에도 최근 연준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과 맞물려 위험자산 회피가 가속화될 수 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이 차별적인 긴축통화정책(금리 인상)을 시행하거나, 미국 주도로 경제가 성장할 때 혹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할 때 나타났다. 금주 발표될 소비지표는 금리 인상 우려를 촉발하거나 글로벌 경기 우려를 촉발하며 달러 강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는 다시 강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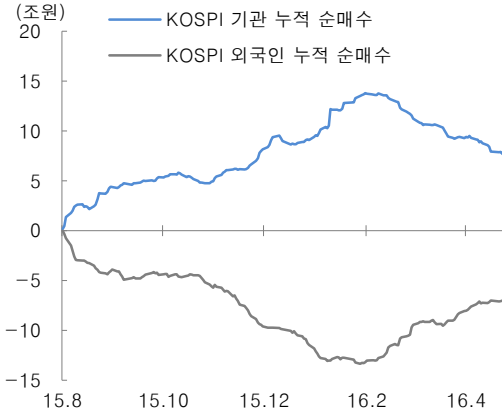
그림 6. 달러 강세 국면 진입 가능성



자료: Datastrea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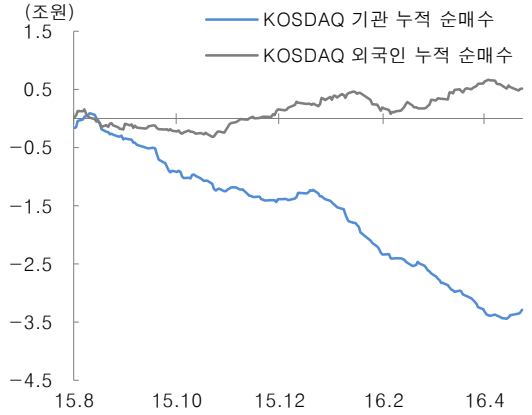
1. KOSPI & KOSDAQ, 외국인/기관 매매동향

그림 10. KOSPI 외국인/기관 누적 매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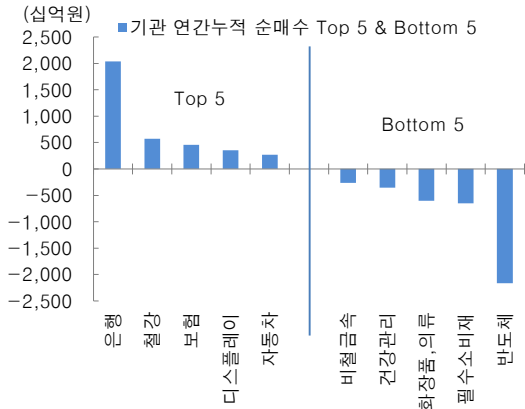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KOSDAQ 외국인/기관 누적 매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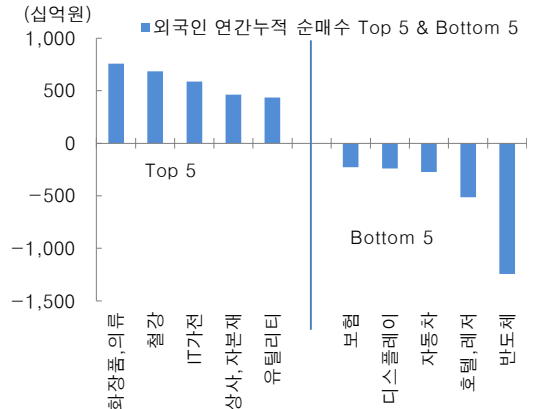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기관 연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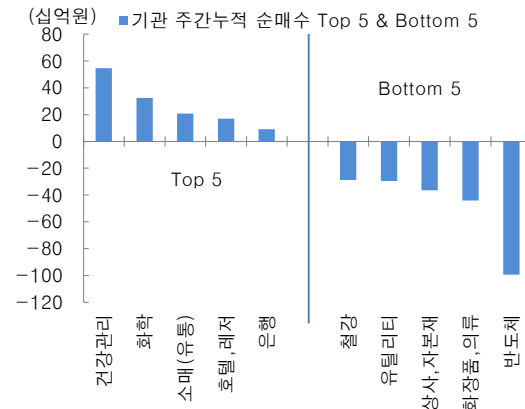
주: 2016년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외국인 연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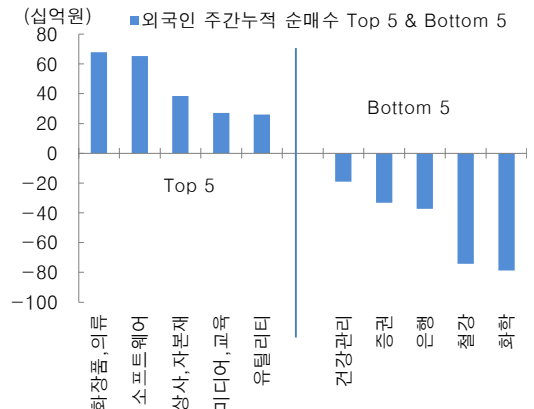
주: 2016년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기관 주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주: 주간 누적 순매수는 5월 9일 ~ 5월11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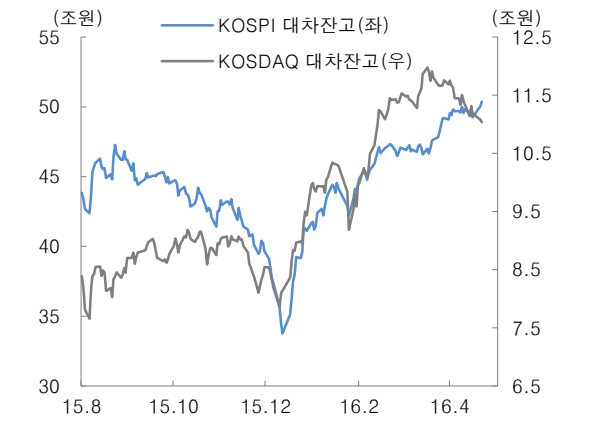
그림 15. 외국인 주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주: 주간 누적 순매수는 5월 9일 ~ 5월11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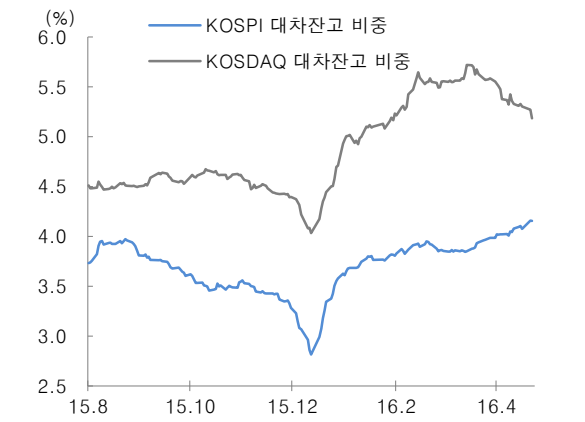
2. KOSPI & KOSDAQ, 대차거래 추이

그림 16. KOSPI & KOSDAQ 대차잔고 추이(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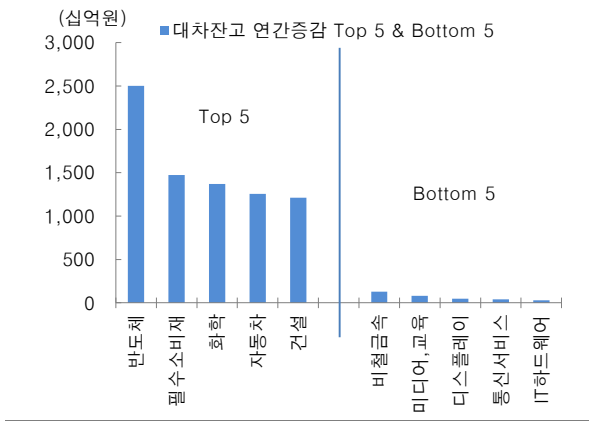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5월 10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KOSPI & KOSDAQ 대차잔고 추이(비중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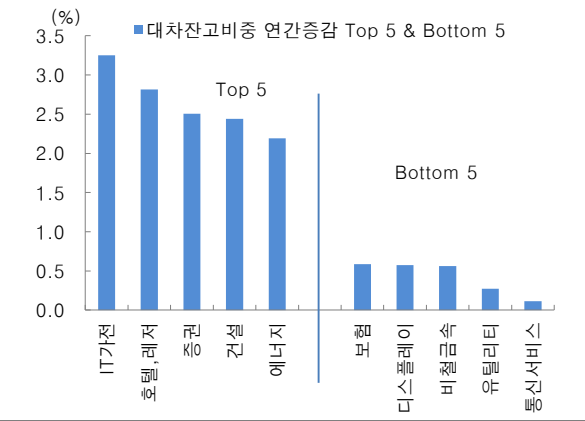
주: 대차잔고 비중은 KOSPI & KOSDAQ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 데이터는 5월 10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대차잔고 연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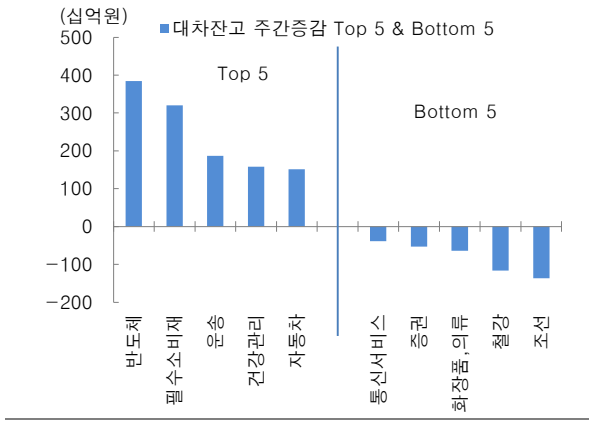
주: 2016년 연초 이후 누적. 데이터는 5월 10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대차잔고 연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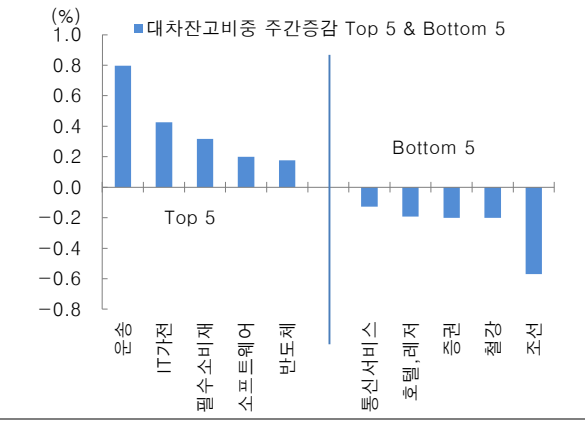
주: 대차잔고 비중은 업종별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 2016년 연초 이후 누적. 데이터는 5월 10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대차잔고 주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금액)



주: 데이터는 5월 10일 금액 변화 누적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대차잔고 주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비중)



주: 대차잔고 비중은 업종별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 데이터는 5월 10일 비중 변화 누적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11일 KOSPI는 기관의 매도세에 0.12% 하락한 1,980.10에 거래 마감
- 기관은 2,414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07억원, 698억원 매수 우위

▶ 국내 증시

전일 업종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업종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상승률 상위 10종목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하락률 상위 10종목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1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연간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국가/지역	비율 (%)
선진시장	1.1
북미	0.8
EAFE	0.4
북유럽	0.3
태평양	0.2
유럽	-0.8
북아프리카	-1.0
남아프리카	-2.1
중남미	-0.6
아시아	-1.0
호주 & 뉴질랜드	-1.2
기타	1.1

산업	신진국 (%)	신용시장 (%)
사회	-0.2	-2.2
금융	0.6	-0.5
IT	1.6	-0.2
경제서비스	1.5	-0.9
산업재	1.0	-1.8
에너지	0.4	-1.1
유틸리티	-0.1	-0.8
필수소비재	1.9	-0.1
통신서비스	1.1	-0.6
웰스케어	1.5	-0.1

국가	비율 (%)
그리스	6.0
호주	2.0
미국	1.5
유럽	0.5
S&P500	1.0
다우지수	1.0
나스닥	1.0
캐슬랜드	1.0
싱가포르	0.5
홍콩	0.5
캐나다	0.5
스페인	0.2
일본	-0.5
프랑스	-0.5
스웨덴	-0.5
싱가포르	-1.5
이탈리아	-2.0
독일	-2.5

국가	비율 (%)
핀란드	5.0
남한	2.5
베트남	2.2
아르헨티나	2.0
인도	1.5
필리핀	1.0
미국	0.8
중국	0.2
멕시코	-0.2
쿠웨이트	-0.5
인도네시아	-0.8
대만	-1.0
말레이시아	-1.2
타이	-1.5
태국	-2.0
체코	-2.5
러시아	-4.0
일본	-5.0

(%)

Item	Yes (%)
가족관계	3.5
친구관계	3.0
동료관계	2.9
부모관계	2.3
친척관계	2.2
미디어	2.1
소셜네트워킹	1.8
소비자생활	1.4
가계생활	1.2
제품관계	1.1
서비스관계	0.8
서비스제품	0.7
서비스서비스	0.6
서비스서비스	0.5
서비스서비스	0.4
서비스서비스	0.3
서비스서비스	0.2
서비스서비스	0.1
서비스서비스	0.0
서비스서비스	-0.1
서비스서비스	-0.2
서비스서비스	-0.3
서비스서비스	-0.4
서비스서비스	-0.5
서비스서비스	-0.6
서비스서비스	-0.7
서비스서비스	-0.8
서비스서비스	-0.9
서비스서비스	-1.0
서비스서비스	-1.1
서비스서비스	-1.2
서비스서비스	-1.3
서비스서비스	-1.4
서비스서비스	-1.5
서비스서비스	-1.6
서비스서비스	-1.7
서비스서비스	-1.8
서비스서비스	-1.9
서비스서비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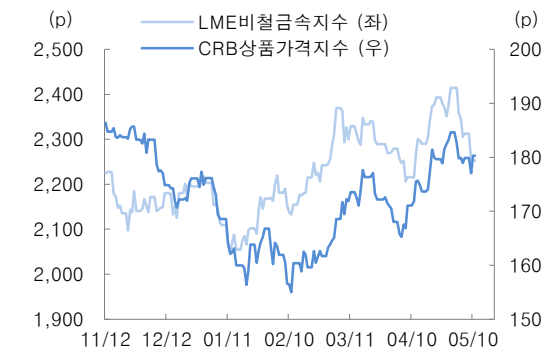
Category	Change (%)
승인인	1.5
애팬	0.5
상품	0.5
생활용품	0.5
부	0.5
음식	0.5
음료	0.5
내구재	0.5
의류	0.5
헬스케어	0.5
장미	0.5
홈서비스	0.5
제약	0.5
바이오	0.5
소비재	0.5
서비스	0.5
반도체	0.5
자동차	0.5
부품	0.5
다각화	0.5
미디어	0.5
소프트웨어	0.5
소매	0.5
에너지	0.5
서비스	0.5
서비스	0.5

11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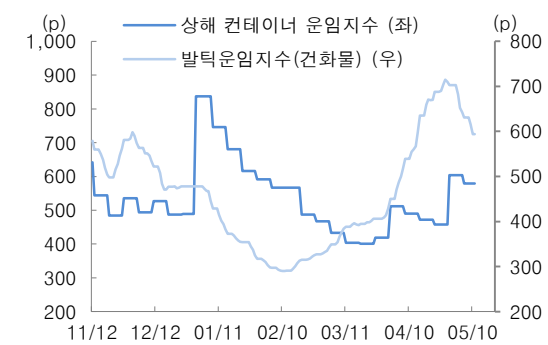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2.8% 상승한 44.66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6월 인도분이 전날 종가보다 0.1% 내린 온스당 1264.8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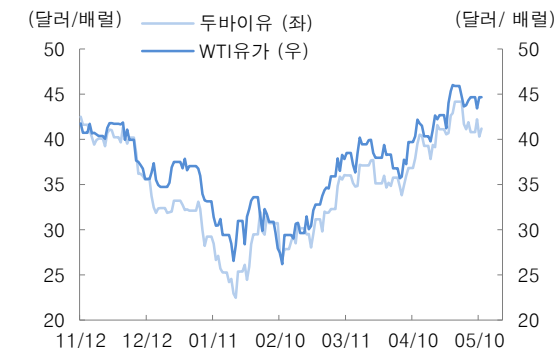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운임 지수(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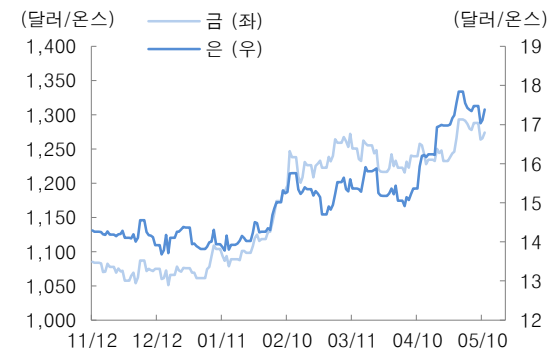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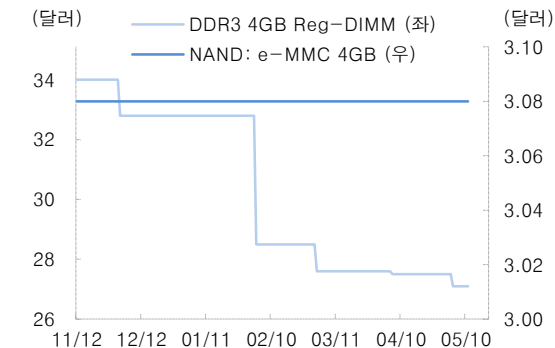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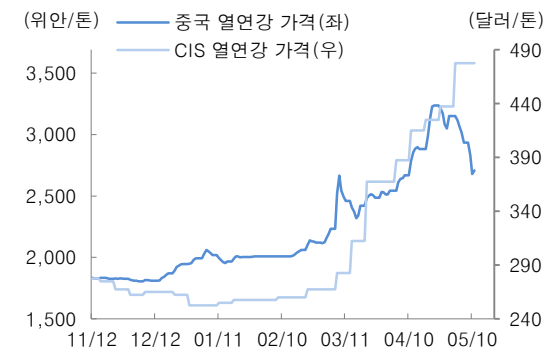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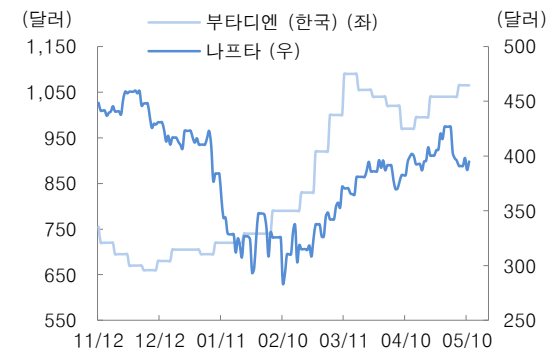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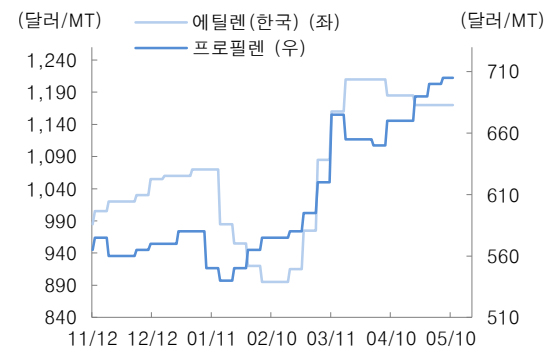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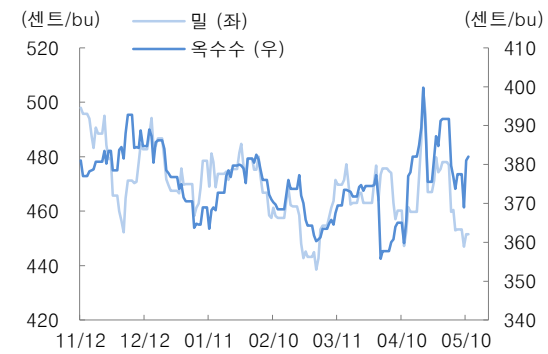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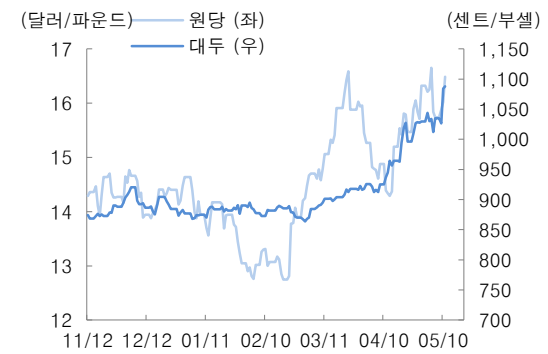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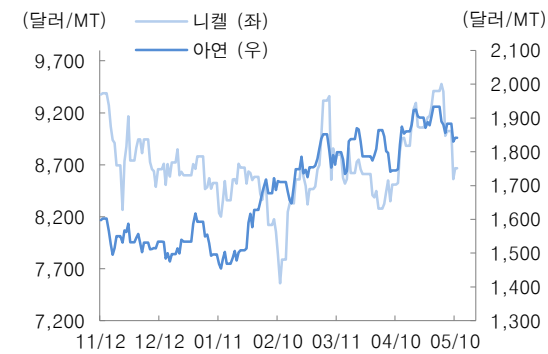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당, 대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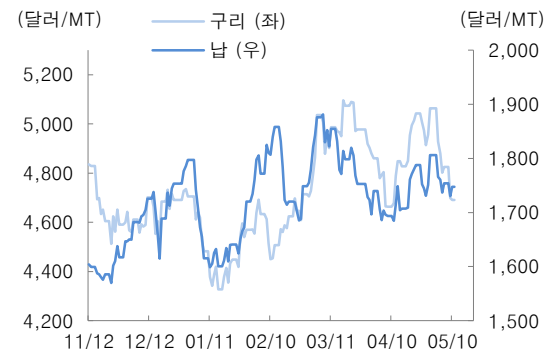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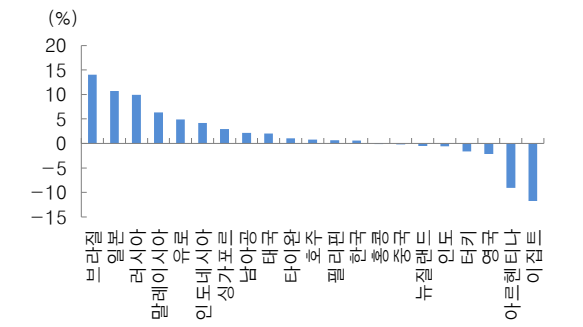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내린 1167.6원에 장을 마감
- 11일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0.5bp 오른 1.417%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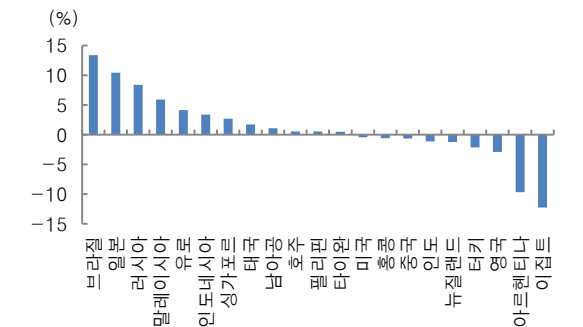
▶ 환율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달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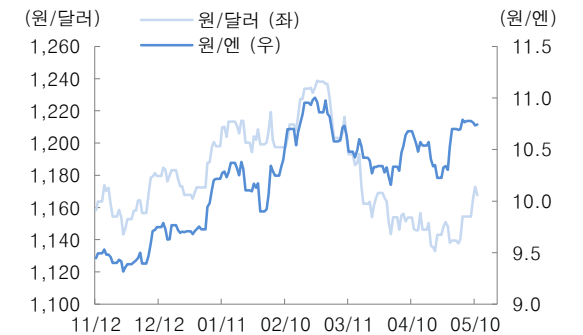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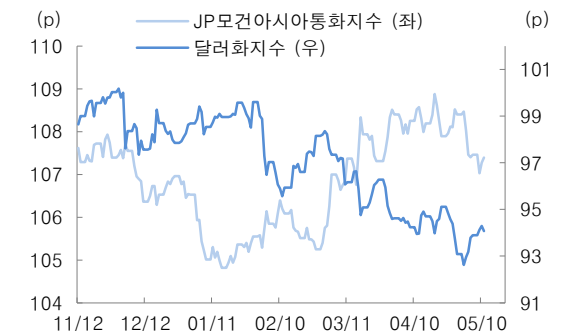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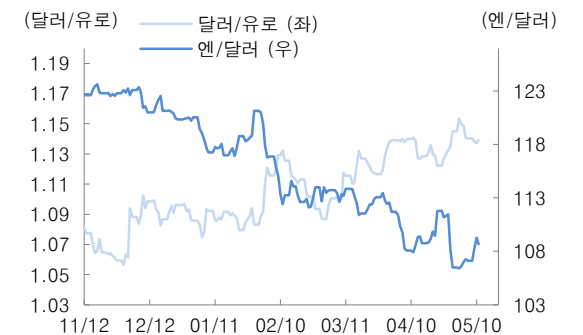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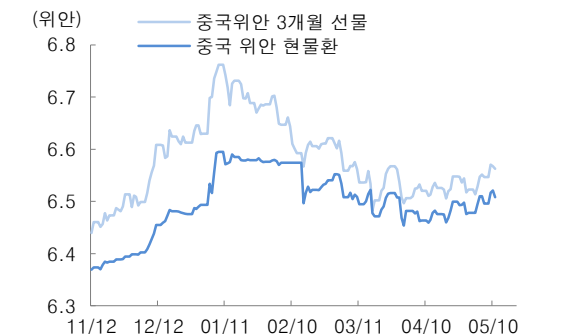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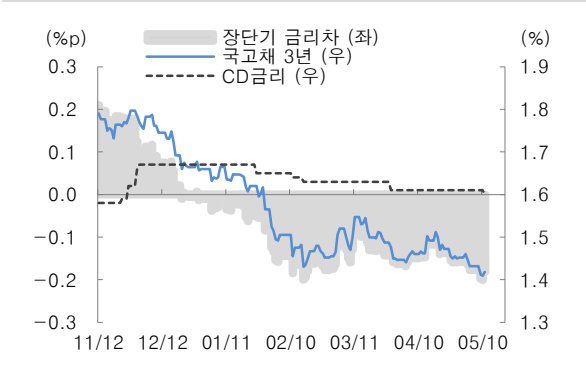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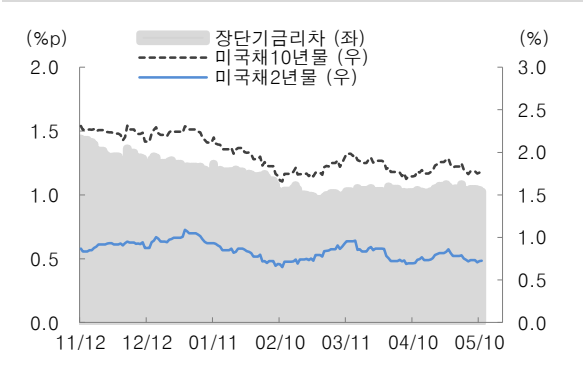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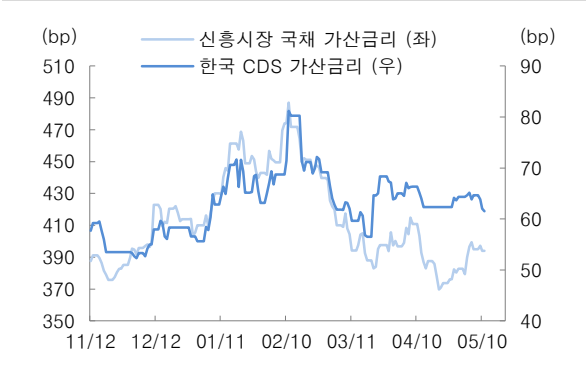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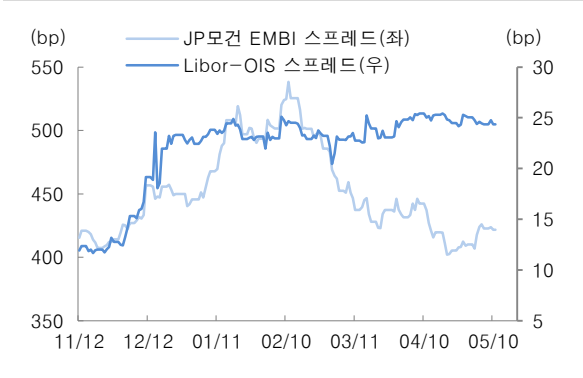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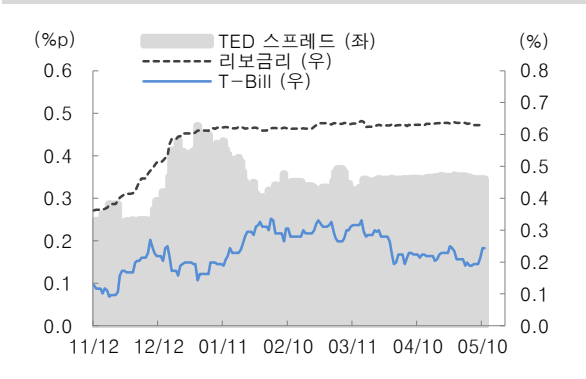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JP모건 EMBI 스프레드, Libor-OIS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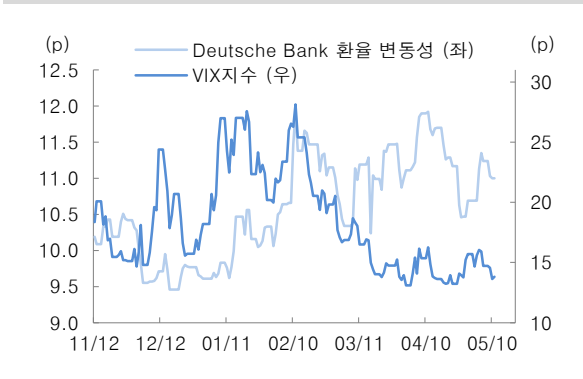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Deutsche Bank 환율 변동성과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5/11	5/10	5/09	5/04	5/03	05월 누적	16년 누적
개인	130.8	-124.8	119.2	297.8	68.5	672	-1,911
외국인	70.4	35.5	-99.1	171.9	86.8	234	2,908
기관계	-241.4	41.0	-52.7	-490.4	-177.0	-1,098	-1,314
금융투자	-182.8	-42.2	32.2	-461.2	-265.0	-1,064	-1,016
보험	4.8	11.2	-20.1	-18.3	14.4	-11	2,472
투신	-45.2	0.2	-35.9	18.4	-1.0	-74	-1,489
은행	-7.5	-9.9	-8.2	-4.8	-3.9	-36	-416
기타금융	-2.2	-0.7	-4.9	-1.0	-15.2	-24	-134
연기금	13.1	30.6	-6.9	-30.3	15.2	10	379
사모펀드	-25.4	51.1	-10.3	-1.3	22.9	35	-1,106
국가지자체	3.7	0.7	1.5	8.0	55.6	66	-4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46.1	LG 전자	16.3	롯데케미칼	20.0	삼성전자	64.7
SK 이노베이션	14.9	해태제과식품	12.6	CJ	8.6	해태제과식품	18.3
NAVER	13.2	엔씨소프트	8.8	엔씨소프트	8.4	아모레퍼시픽	16.9
LG 유플러스	9.9	롯데케미칼	6.2	한화	7.1	NAVER	12.5
아모레퍼시픽	9.5	한미약품	6.1	GS 건설	6.3	삼성물산	12.4
코스맥스	8.9	삼성전기	5.3	CJ 제일제당	6.2	LG 전자	11.6
현대모비스	8.2	두산인프라코어	5.1	후성	5.5	KT&G	9.1
이마트	7.9	영진약품	5.1	하나투어	4.5	한국전력	7.3
CJ CGV	7.8	삼성전자우	5.1	LIG 넥스원	4.2	한국항공우주	6.7
GS 건설	6.3	GS	5.0	GS	3.8	아모레 G	6.6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CJ E&M	15.8	셀트리온	7.2	CJ E&M	19.1	하이즈항공	10.1
하이즈항공	9.0	컴투스	2.4	카카오	11.6	파라다이스	4.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5	유지인트	2.3	컴투스	7.6	셀트리온	3.9
게임빌	2.9	뉴트리바이오텍	2.2	게임빌	6.6	삼천리자전거	2.6
카카오	2.8	인트론바이오	1.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2	원익홀딩스	2.5
인바디	2.8	이오테크닉스	1.8	제이콘텐츠리	3.1	차바이오텍	1.9
케어젠	2.5	제넥신	1.4	에이치엘비	1.9	디지털유평	1.2
인터로조	1.3	아트라스 BX	1.3	제넥신	1.8	테스	1.1
GS 홈쇼핑	1.2	메디톡스	1.3	바이넥스	1.4	서부 T&D	0.9
안랩	1.0	보성파워텍	1.2	큐리언트	1.4	SK 머티리얼즈	0.8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152.8	2.5	SK 하이닉스	57.6	-5.2	KT	53.5	0.2	삼성전자	154.4	2.5
NAVER	117.8	2.5	POSCO	48.9	-8.7	엔씨소프트	42.3	2.4	현대차	88.3	-2.5
아모레퍼시픽	71.4	1.1	삼성물산	33.1	-0.4	CJ	29.5	9.5	SK 하이닉스	75.6	-5.2
LG 유플러스	36.9	0.0	효성	31.2	-2.5	하나투어	27.5	11.9	NAVER	59.0	2.5
SK 이노베이션	35.3	-1.3	엔씨소프트	28.4	2.4	농심	22.2	9.6	POSCO	57.1	-8.7
현대모비스	32.9	0.8	롯데쇼핑	28.3	-10.5	SK 텔레콤	21.8	-0.5	SK 이노베이션	38.6	-1.3
삼성 SDI	30.8	-2.6	LG 화학	28.1	-1.4	코스맥스	17.7	14.8	LG 화학	38.3	-1.4
현대차	28.5	-2.5	한미약품	26.8	1.0	LIG 넥스원	16.2	6.9	현대건설	37.2	-8.3
BGF 리테일	26.0	11.1	기업은행	23.7	-1.3	한미사이언스	15.5	6.4	기아차	36.5	-0.8
KT&G	24.9	2.8	삼성전기	22.0	-1.6	GS 건설	15.1	1.0	LG 유플러스	35.5	0.0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KT	53.5	0.2	삼성전자	154.4	2.5	KT	53.5	0.2	삼성전자	154.4	2.5
엔씨소프트	42.3	2.4	현대차	88.3	-2.5	엔씨소프트	42.3	2.4	현대차	88.3	-2.5
CJ	29.5	9.5	SK 하이닉스	75.6	-5.2	CJ	29.5	9.5	SK 하이닉스	75.6	-5.2
하나투어	27.5	11.9	NAVER	59.0	2.5	하나투어	27.5	11.9	NAVER	59.0	2.5
농심	22.2	9.6	POSCO	57.1	-8.7	농심	22.2	9.6	POSCO	57.1	-8.7
SK 텔레콤	21.8	-0.5	SK 이노베이션	38.6	-1.3	SK 텔레콤	21.8	-0.5	SK 이노베이션	38.6	-1.3
코스맥스	17.7	14.8	LG 화학	38.3	-1.4	코스맥스	17.7	14.8	LG 화학	38.3	-1.4
LIG 넥스원	16.2	6.9	현대건설	37.2	-8.3	LIG 넥스원	16.2	6.9	현대건설	37.2	-8.3
한미사이언스	15.5	6.4	기아차	36.5	-0.8	한미사이언스	15.5	6.4	기아차	36.5	-0.8
GS 건설	15.1	1.0	LG 유플러스	35.5	0.0	GS 건설	15.1	1.0	LG 유플러스	35.5	0.0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5/11	5/10	5/09	5/04	5/03	05월 누적	16년 누적
한국	73.0	49.9	-131.6	123.2	120.3	160	2,744
대만	-287.8	-88.8	-223.6	-418.2	-384.7	-2,158	3,549
인도	-	57.5	44.4	-4.6	-112.8	16	1,815
태국	-28.4	-37.1	-53.9	-39.0	12.6	-146	239
인도네시아	7.7	-7.6	-34.2	-27.7	-48.4	-149	189
필리핀	40.3	-14.9	-	9.4	0.6	9	51
베트남	-8.9	3.2	-5.5	4.1	-	2	-116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